

대행 스님

공법의 문 없는 문을 발견하라

나는 머리 깎은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가 머리를 깎는 거는 방편으로 깎지만 공부하는 거는 머리 깎고 안 깎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몸뚱이가 자긴 줄 알거든요, 모두가.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처를 주장자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종자의 뿌리인데, 즉 근본, 생명의 근본 뿌리예요. 그래서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수없이 진화시켜서 생성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자기가 물질세계에서만 반복해서 보던 거, 듣던 거 여기에 감지돼 가지고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물질세계 50%에서 정신세계 50%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알아서 굴려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50%는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미생물에서부터 진화시켜서 형성시켜 왔다는 거를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형성시키려면 가공이 돼야 되듯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삼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형성시켜서 지금도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는 차가 자기래요. 끌려다니는 자동차와 같거든요, 이 몸이. 이건 생명의 근본이 빠지면 송장이 되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고. 그러나 자기 영혼의 근본은 한계가 없거든요. 그 때문에 아주 그, 보물이라고 할 수밖엔 없죠. 보배 중의 보배죠, 아주.

그런데 거길 못 믿어요. 아니, 형상과 이름 이런 거는 믿어도 자기를 리드해 가는 자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리석게 딴 사람더러, 딴 그림자를 보고 기도를 하면서 해 달라고 그러니, 그게 돼요?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지금 병이 나도 여기다가 진짜로 믿고 관해야, 이 의식들이 모두 그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야 통신이 돼요. 통신이 돼야 대뇌로 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그냥 공장장한테로 다 통신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 개체의 세계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통신이 되면 '어느 부분, 어디가 왜 이렇게 됐느냐. 수문장이 잘못한 거냐, 안에서 일어난 거냐, 바깥에서 들어온 거냐.' 자동적인 컴퓨터에서 증명서가 나오듯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와서 부서에서 저거 하면 그냥 모두 서로서로 통신을 하면서 작용을 해 주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도 전부 자동적인 정수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항상 되는 겁니다, 항상. 그대로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이 속의 생명들은 다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 주거든요. '내가 저 집 가서 도둑질하겠다.' 그러면 도둑질하게끔 따라 줘요. 그리고 또 '아, 이건 뭐, 시간이 돼야만 될 텐데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러기 이전에 '이 도리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이러곤 그냥 밀고 나가면 그대로 따라 주죠. 즉 얼른 쉽게 말해서 내 이 자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통신이 돼서 작용을 함으로써,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조절을 한다. 즉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단 얘기죠.

지금 그 입자를 뭐라고 이름을 부를까. 비천상이라고도 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보살들을 입자라고 해도 방편이 됩니다. 입자가 다시 원자도 될 수 있고 또 원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깊은 공부입니다. 자기를 리드하고 자기 보디가드가 돼 주고 자기 해결사가 돼 주고 자기 의사가 돼 주고, 때로는 관세음이 돼 주고 때로는 해신이 돼 주고 산신이 돼 주고, 그냥 그 용도에 따라서 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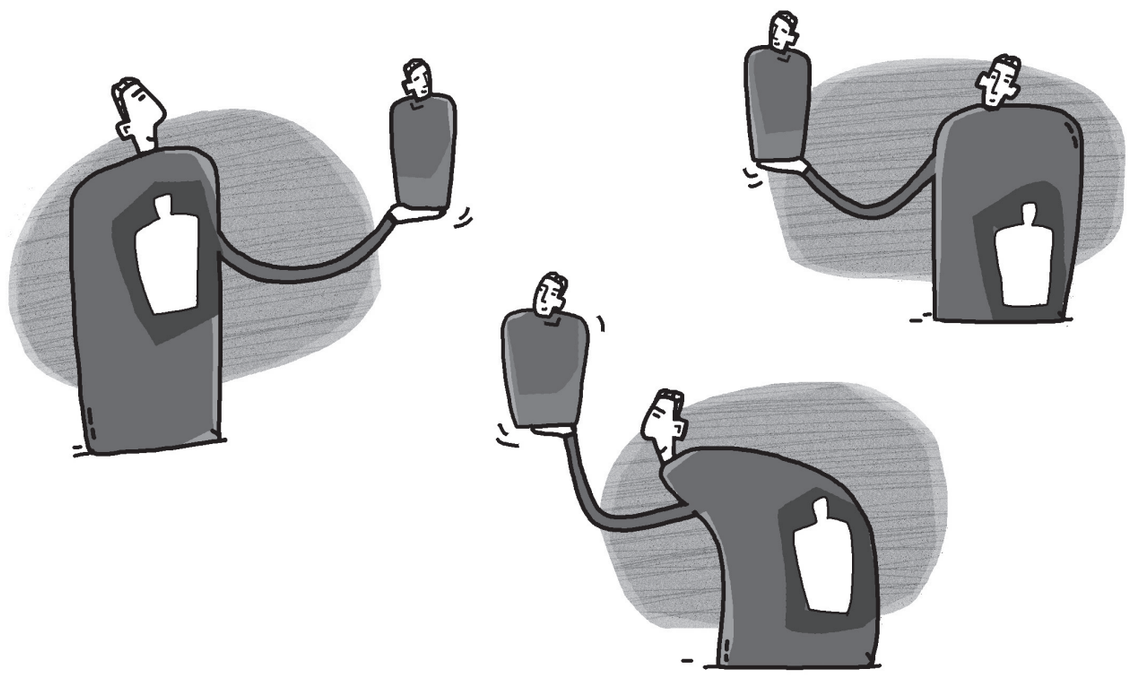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게 자기한테 닥친 것대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작용을 작용이라고 하질 않고 공법이라고 그러죠. 용무의 공법. 그런데 모두 주인공은 진짜로 찾으면서, 믿고 찾으면서도 아주 가긍하질 못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래서 죽게 되니까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다.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게 한 것도 너고 있어서 살게 하는 것도 너니까 죽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그러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맘대로 해.' 하고 너무 지치니까 그냥 팽개쳤더래요. 그래선 툭툭 털고 일어났더래요. 그 모든 게 그렇게….

그래서 이게 '교화를 한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문 없는 문, 법문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 때 공법의 문 없는 문을 발견하라. 문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선 공부에선 그냥 아주 망친 거죠. 문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은 지금 현실 세계밖에 더 있습니까? 이 공용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공심이 문을 찾아서 다닙니까? 문도 없고 봇장도 없고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은산철벽으로 막혔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죠, 체가 없으니까. 물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법을 배우려면 이것부터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의사들 또 과학자들, 이러한 분들이 더 알아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우리가 마음의 차원이 높지 않다면 앞으로는 높은 데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쓸 수도 없고, 높은 데 있는 그 에너지의 질량을 어떻게 방침을 세워서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죽게 되면 죽는 거죠. 이북에 지금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디다. 그거와 같거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가 훌랑 그냥 한 주머니밖에 더 돼요? 한 주머니의 공기 주머니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공기 주머니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신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모두를 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것도 한 개체니까 만약에 지구가 버스라면, 이 몸뚱이라고 해도 되죠. 버스라면 버스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버스 안에서 우리들은 같이 백 년 천 년 살 줄 알고 그냥 악머구리 끓듯 하는 거죠. 네 거 내 거 찾고. 이 물질세계로만 자꾸 치달았기 때문이죠. 진리가 낮고 높고 중간이고 간에,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삼계가 그냥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삼계가 그냥, 그냥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삼계가 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개체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지구 안에서 벗어나야 전 우주로 향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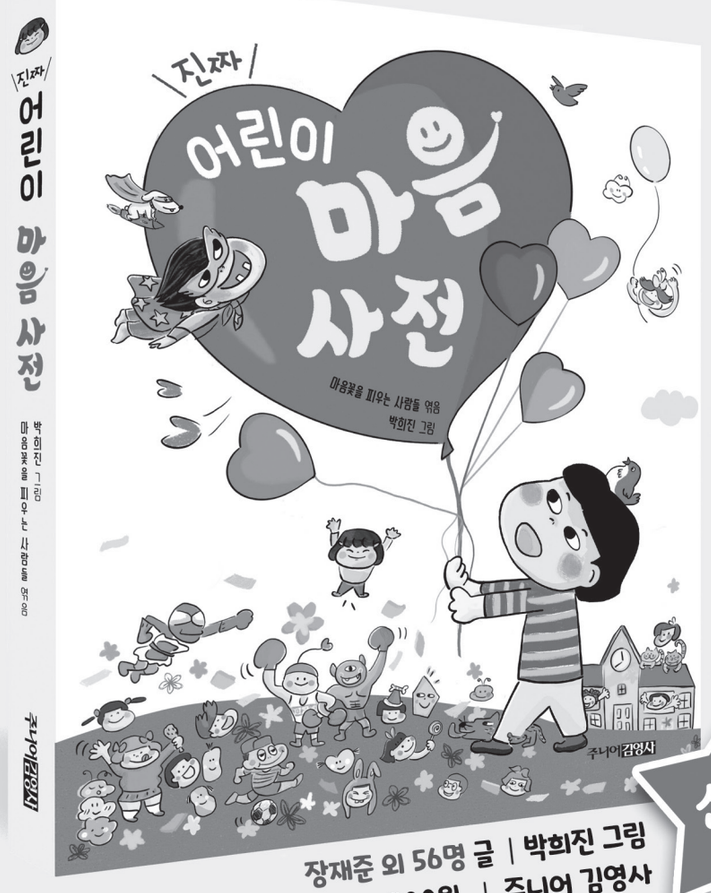
알뜰하게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지, 내 속을 그냥 펼쳐 보일 수도 없고, 허허, 참…. 어떤 땐 슬프기도 하고요. 진리가 그러하지, 뭐. 불쌍하고 모두 눈물 나고 아프고 그냥 뼈저리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모두 살 때에, 벌레도 그렇고요, 모두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그러는 걸 보면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진리가 뭐, 그러하지.' 이러곤 그냥 하다 보면 순간 그냥 슬퍼요.

우리 지구에만 생명들이 산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느냐도 문제지요. 이 몸을 벗어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내가 모습을 어떻게 해 가지고 나오든지 자유자재로서의 자기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그것도 아주 그대로지요. 그러게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자기가 하천세계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도. 팔자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습을 어떻게 해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팔자 운명이 정해지죠, 차원에 따라서. 왜냐하면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개 대접밖에 못 받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그래요. 아주 못나고 가난하게 내가 받아 가지고 나온다. 그거 억지로 못하거든요. 영화배우들이 어떠한 역할을 자기가 맡았다면 그대로 거기밖에는 해당되지 않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해 가지고 나왔으면 그 모습으로 나온 까닭에, 자기가 그냥 닭으로 나오든 개로 나오든 돼지로 나오든 소로 나오든…. 그래서 소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람에게 요만한 거 하나 버리지 않고 주지 않습

☞ 22면으로 계속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